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9. 5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포항에서 추진중인 CO2 저장사업의 중단 여부는
결정된 바 없음 (매일경제 인터넷판 5.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산업부가 포항에서 추진중인 CO2 저장사업의 전면 철수를 결정하고, 사업용지 원상복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
- ◇ 5월 2일 매일경제 인터넷판 <포항지진 '불뚱'... CO2 저장사업 전격 중단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포항지진 이후, 지진 촉발 위험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였으며,
 -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O2 지중 저장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포항에서 추진중인 CO2 저장사업의 중단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, 현재 지진 유발 관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진행중으로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5월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

※ 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박재영 과장/강정웅 사무관 (044-203-5127)